

자유주의 우생학의 기획과 정치 신학적 응답

황은영 (성결대학교, 조교수)

I. 들어가는 말

II. 자유주의 우생학과 신학적 응답

1. 자유주의 우생학에서의 향상의 기획
2.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신학적 응답

III. 자녀 향상과 자유주의 중립성 그리고 신학적 응답

1. 자녀 향상 이론과 자유주의 중립성 이론에서의 향상의 기획
2. 자녀 향상과 자유주의 중립 이론에 대한 신학적 응답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4.58.12>

• ABSTRACT •

The Project of Liberal Eugenics and A Political-Theological Response

Assistant Prof., Hwang, Eunyoung (Sungkyul University Paideia College)

This article examines how a political theological response can address the project of genetic enhancement, which involves the parents' rights for procreation according to their concept of good life, the child's autonomy of life, and the government's authority for interven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oncepts of good. Whereas Agar's project of liberal eugenics suggests the priority of the parents' procreative rights for enhancement according to their concept of good life, Fox and Dekker's revision calls for the liberal government's intervention for guaranteeing hypothetically agreeable general goods to enhance the child's autonomy.

In response to liberal eugenics and its revisions, a political theological response affirms the priority of therapy and promotes the equality of the child's autonomy according to the general concepts of good life, while leading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and the general public through its cultural influence on civil society.

Key words: Liberal Eugenics, Genetic Engineering, Enhancement, Therapy, Political Theology

I. 들어가는 말

인간 자신의 삶을 향상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가능해지면서, 현재 생각 되는 인간의 본질을 넘어서서 새로운 종류의 인간 너머의 종을 창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에 따르면 트랜스 휴머니즘은 “현재의 인간 종의 상태가 그 발전의 마지막이 아니라 아직 그 이전 단계에 있음을 전제”하며 이 점에서 “응용 이성, 즉 노화와 인간의 지성적, 신체적, 심리적 역량들을 향상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인간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의 가능성과 유익을 증명”한다.¹⁾ 물론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물학적 기술은 분자적 나노 기술이나 인공 지능, 가상현실, 냉동 인간, 마인드 업로딩, 기술적 특이점 등 여러 기술적 개입 등 중의 하나이며, 특히 유전자 조작은 체세포와 생식 세포 모두에 관여하며 거의 모든 질병과 지성, 외향, 양심, 외모 등 모든 인간 특질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된다.²⁾ 트랜스 휴머니즘이 현시대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그것이 지향하는 인간 종의 자기 초월의 비전이 아니다. 그것이 드러내는 심각성은 현재의 기술 발전이 보여주는 인간 본질 자체에 대한 개입과 변형 가능성을 개연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에 있다.

기술을 통한 인간의 자기 향상(enhancement)에 대한 비전에서 우생학의 문제는 피할 수 없다. 고전적 우생학은 생존에 적합한 집단의 우월성과 그 형질의 향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개입과 퇴락으로 향하는 열등성을 규정하는 형질의 저해를 추구하는 부정적인 개입 모두를 함의한다.³⁾

1) Nich Bostrom, “The Transhumanist FAQ,” in *Transhumanism and the Body*, ed. C. Mercer and D.F. Mahe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355-360.

2) Ibid.

3) Allen Buchanan and al., *From Chance to Choice: Genetics and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33-4. 고전적으로 갤턴(Francis Galton)에 의해

DNA를 둘러싼 상대적으로 정확한 과학적 해명과 현실적인 기술적 개입이 가능해지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촉진되어야 할 특질들과 부정적으로 저해되어야 할 특질들을 가려내고 이를 향상과 치유로 연결하며 유전 과학적, 공학적 개입을 통해서 실현하는 우생학의 문제는 다시 피할 수 없게 된다. 우생학이 부정확한 지식과 이념적 편견에 기초한 국가 주도적 개입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DNA 연구에 기반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과 기술적 개입을 갖추게 되면서, 이제 우생학은 자유주의적 체제 안에서 개인 선택과 전문가의 과학적-기술적 합리성에 근거한 인류의 개체적, 종적 향상의 문제로 파악된다.

자유주의적 우생학을 둘러싼 논의는, 인간 개체와 종의 향상을 위한 유전 과학적 분석과 기술적 개입이 가능하다면, 한 개인이 자신의 선택한 삶의 개념에 따라서 다른 잠재적 인격, 즉 배어나 태아 형태의 자녀의 삶의 자율성에 유전적 영향을 주며 개입하는 것이 정치적 자유주의의 틀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니콜라스 아가르(Nicholas Agar)가 제시한 자유주의 우생학(Liberal Eugenics)은 부모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소극적 치료를 넘어서 적극적 향상을 위해서 자녀의 특질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우생학적 개입을 주장하면서, 과거 우생학의 국가주의적 개입의 위험성을 보완하려 한다.⁴⁾ 그러나 한 개인이 자기 나름으로 파악한 선택한 삶의 가치에 따라서 다른 잠재적 개인, 즉 그 자녀에게, 그 유전적 설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실존적이고 또한

서 정의되는 우생학은 다음과 같다. “혈통을 개선하는 학으로서 이는 결코 단순히 현명한 교배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경우 아무리 먼 정도라도 더 적합한 종족 혹은 혈통이 덜 적합한 이들에 대해 우세권을 신속하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영향을 인식하는 것까지 나아간다.” Francis Galton F. *Inquiries into Human Faculty and its Development* (London: Macmillan, 1883), 17.

4) Nicholas Agar, *Liberal Eugenics: In Defence of Human Enhancement* (Malden, MA: John Wiley & Sons, 2008); “Liberal Eugenics,” *Public Affairs Quarterly* 12.2(1998), 137-155.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경고가 있었다.⁵⁾ 특히 자유주의 우생학에서와 같이 부모 나름의 선 개념에 따라서 생식 권리를 우선하는 것은 결국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 하기에 수정된 입장에 따르면, 자유주의 정부는 배아 혹은 태아 상태의 자녀 역시 이후 가설적으로 동의할 만한 일반적인 선으로서 자율을 실현하게 하는 조건들을 규정하고 마련하는 방식으로 향상에 개입하고 그 준수를 부모에게 의무로 요구해야 하며, 또한 그 외의 특수한 선 개념에 따른 향상을 부모에게 허용 혹은 금지해야 한다.⁶⁾ 신학 역시 자기 나름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유전적 향상 혹은 치유의 문제에 접근한다. 신학적 관점은 자유주의 우생학이 제시하는 향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유전적 개입에서 부모-자녀 간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신학적 범주들을 따라서 비판하며, 또한 그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신학은 역시 자유주의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자녀의 자율성 증진이라는 일반적 선에 따른 향상에 대해서 결국 자율성의 이념은 물론 자유주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각각 정치 신학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⁷⁾

5)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실존적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제작의 태도로 형성하는 것은 그의 정체성과 자율성 형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본다. 또한 자유주의 우생학은 윤리-정치적으로 서로 간의 자율과 평등성을 그리고 시민 간의 연대성 또한 파괴할 것으로 본다. Jürgen Habermas, *The Future of Human Nature* (Malden, MA: John Wiley & Sons, 2014);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유전 조작으로 인한 능력의 분화가 결국 민주주의 정치 제도의 전제로 작동하는 본성의 공동성을 파괴할 것으로 전망한다. Francis Fukuyama, *Our Posthuman Future: Consequences of the Biotechnology Revolution*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2002); 마이클 샌델(Michael)은 생명이 가지는 우연성과 선물성(giftedness) 자체를 긍정하고 이에 대한 인위적 개입을 부당하다고 강조한다. Michael J. Sandel, *The Case Against Perfe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6) Dov Fox, "The Illiberality of 'Liberal Eugenics'," *Ratio* 20.1 (2007), 1-25.; Teun J. Dekker, "The Illiberality of Perfectionist Enhancement," *Medicine, Health Care and Philosophy* 12 (2009), 91-98.

7) 물론 이 지점에서 왜 정치 신학적인 관점에서 유전적 향상/치료에 대한 자유주의 국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신학적인 관점에서 자유주의 우생학과 유전적 향상과 치유에 대한 논의를 다루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주로 생명 윤리의 측면에서 유전적 향상/치유에 대한 논의를 비판하고 혹은 그 흐름을 제시하거나 혹은 트랜스 휴머니즘 논의와 관련지어 향상/치유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해외에서의 주된 논의는 어떻게 향상/치유의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원칙을 가려내고 고수하며 그에 전제된 신학적 인간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상을 어떻게 신의 지속적인 창조의 틀 속에서 신학적으로 정당화할 것인지, 또한 그것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신학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다루어왔다.⁸⁾ 국내 연구 지형을 살펴보자면,

의 개입과 정의의 문제를 기독교 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판단하지 않고 굳이 야가르와 데커, 폭스의 이론을 경유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자유주의 우생학의 문제를 분석하는 주된 개념들이 생명 윤리적 차원에서 발전되었지만, 신학적 개념들이 아직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본 논문은 결국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논의들과 개념들을 소개하고 설명한 후에 이에 대한 신학적 개념들을 제안하고 모색하는 선에서 연구의 한계를 규정하고자 한다.

- 8) 앨런 버히(Allen Verhey)와 같은 학자들은 치유와 향상의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신학적 원칙으로서 치유적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Allen Verhey, "Playing God' and Invoking a Perspective," *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 20.4(1995), 347-364. 앤드류 루스틱(Andrew Lustig)은 다양한 기독교 전통들에서 논의된 향상/치유의 사례들을 고찰하고 기독교 전통 자체가 교파들의 차이를 막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다섯 요소들을 추출한다. Andrew Lustig, "Enhancement Technologies and the Person: Christian Perspectives,"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36.1 (2008), 41-50. 알렉산더 마스만(Alexander Massmann)은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자유주의 우생학 논의를 활용해서 연약함을 감수하는 자녀의 자율성의 증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반영하는지를 제시한다. Alexander Massmann, "Genetic Enhancements and Relational Autonomy: Christian Ethics and the Child's Autonomy in Vulnerability," *Studies in Christian Ethics* 32.1(2019), 88-104. 트랜스-휴머니즘 논의와 관련해서, 피터스는 신의 지속적 창조와 창조된 공동 창조자로서 인간의 문화적 개입을 주장하면서 치유뿐 아니라 향상 역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Ted Peters, *Playing God: Genetic Determinism and Human Freedom* (New York: Routledge, 1997). 브렌트 워터스는 유전적 치유/향상의 담론을 포스트-휴먼 논의에 연관 지으며 단순히 창조성이나 공동 창조 같은 추상적 논의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섭리와 종말과 같은 신학적 개념을 더 부각하고 명확하게 규명된 목적론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rent Waters, *From Human to Posthuman: Christian Theology and*

철학적 윤리학의 영역에서는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축적되었다.⁹⁾ 신학과 기독교 윤리학의 영역에서는 자유주의 우생학 담론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지만, 생명 윤리 방법론의 문제나¹⁰⁾ 더 나아가서 유전자 가위 기술(CRISPR) 같은 구체적 유전 기술에 있어서 신학적인, 그리고 윤리적 판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¹¹⁾

본 논문은 자유주의 사회에서 부모가 배아로서 자녀에 대해 행사하는 유전적 향상이 부모의 생식 권리, 자녀의 자율성, 그리고 자유주의 정부 개입의 권한과 그에 얽힌 선 개념들에 연관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에

Technology in a Postmodern World (New York: Routledge, 2016).

- 9) 국내 연구에서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서는 주로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들이 주를 이루면서, 역시 하버마스에 대한 논의들 역시 다루어졌다.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은 하버마스와 샌델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비판에서 시작해서(손철성 2011), 생명 정치와 계급적 분화의 문제에 집중하거나(김광연 2014), 행위자 역량 중심 이론에 기반을 둔 비판으로 진행되었고(목광수 2016), 최근에는 간섭주의와 사회 불평등, 유전적 개입의 선과 이에 대한 국가 중립성 문제 등으로 발전되었다(김남준 2020).
- 10) 이경직은 생명 윤리학의 방법론에서 연역적 방법이나 결의론적 방법을 피하고 연관된 배경 이론을 고려하며 성경 언어와 일반 윤리 언어를 상호 번역하는 작업을 제시한다(이경직 2005). 김은혜는 생명 과학 연구가 윤리적으로 민감한 주제인 유전자 치유나 생명 복제 등등에 연관된 만큼 생명에 대한 외경을 바탕으로 과학계와 신학계의 상호 협력을 역설한다(김은혜 2010). 반면에 유경동은 생명 윤리적 접근이 기독교 신학뿐 아니라 법의 영역에 연관됨을 강조하고 기독교 신학이 법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게끔 좀 더 정교한 신학적 개념을 형성해야 함을 강조한다(유경동 2015).
- 11) 방연상의 논문은 생명 산업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유전자 가위 기술의 활용에 작동하는 여러 전제, 즉 기계론적 세계관, 수익 지향성, 지속성으로 환원된 영생 개념, 생명의 우열 분류 등을 비판한다(방연상 2017). 특히 김소윤/이관표의 논문은 텔로미어 유전자 가위의 기술을 통한 영생 개념이 결국 신학적으로 결할 있는 영생이며,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억압, 착취, 그리고 유한성의 거부로 향한다고 본다(김소윤, 이관표 2017). 김광연의 연구는 유전자 가위 편집 기술에서 향상과 치유의 애매성을 논의하면서 결국 최대한의 생명 자체의 자연 상태를 긍정하고 질병 치유의 영역으로 한정해야 함을 강조하지만, 그에 얽힌 자유주의 우생학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김광연 2019). 전대경의 논의는 유전자 가위 편집 기술에 있어서 치유와 향상 혹은 증강 사이의 경계선 문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한 후 영원한 생명이라는 신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치유와 향상의 문제를 구분할 것을 강조한다(전대경 2020).

대한 가능한 정치 신학적인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논문의 첫 번째 부분은, 아가르의 자유주의적 우생학이 어떻게 부모의 선 개념과 생식 권리에 따른 자녀에 대한 향상의 기획과 그 불평등을 보완하는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신학적인 입장이 제시하는 치유의 문제와 부모-자녀의 평등성, 그리고 정의의 문제를 살펴본다. 논문의 두 번째 부분은, 자유주의 우생학을 수정한 폭스와 데커가 어떻게 자유주의 정부가 부모에 의한 자녀 자율성의 침해에 대해서 자율성의 조건으로서 일반적으로 동의할 만한 선, 즉 자연적·일차적 선들을 마련함으로써 개입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신학적 입장에서 자율의 기획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교회가 제시할 수 있는 정치 신학적 대안을 살펴본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자유주의 우생학과 그 이론적 수정들에 대한 정치 신학적 응답이 자녀의 자율성의 평등을 긍정하고 일반적 선의 원칙에 따른 자유주의 정부의 개입과 교회의 시민 사회를 경유한 참여를 요구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II. 자유주의 우생학과 신학적 응답

1. 자유주의 우생학에서의 향상의 기획

자유주의 우생학의 문제는 아가르가 제시한 것처럼, 기존의 국가 주도적 권위주의적 우생학과 구분되는 특질을 가진다. 권위주의적 우생학은 “시민들을 단일한 중앙집중적으로 계획된 틀에서부터 생산해 내었다면, 새로운 자유주의 우생학의 두드러지는 특질이 국가 중립적이고,” 그 시행은 주로 “부모들,” 즉 “자녀들의 개선을 선택하면서 그들의 가치들을 검토하는 것이 허용”되는 개별 부모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¹²⁾ 우생학의 문제

12) Agar, “Liberal Eugenics,” 137.

가 결국 “자녀의 특질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위한 기술적 조건의 활용이라고 할 때, 자유주의 우생학은 나치 우생학과 다르게 부모의 “생식의 자유를 극적으로 확장”하며 부모의 “특정한 선의 개념에 상응하는 유전적 조합들”을 배아에 도입한다.¹³⁾ 즉 이 지점에서 고려할 지점은 크게 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1) 우생학적 개입이 부정적 차원의 치유를 넘어서 긍정적 차원의 향상까지 포괄할 때 자유주의 정치체제의 틀 안에서 어떠한 규범적 의미를 함의하는지, 2) 우생학적 치유-향상이 주는 수혜에 함의된 선한 삶의 개념 규정과 배아 혹은 태아에 대한 실행이 부모 그리고 자녀의 권리의 문제와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지, 3) 우생학적 치유-향상에 함의된 선한 삶의 특질을 둘러싼 분배의 문제가 어떻게 자유주의적 정의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는지가 다루어진다.

첫째, 아가르의 자유주의적 우생학은 유전적 개입을 통해서 수혜자에게 가져오는 수혜에 집중해서 치유와 향상의 모호함을 지적하면서, 치유의 범위를 좁혀서 유전 개입의 의무와 국가 개입을 제한하고 또한 향상의 범위를 넓혀서 유전 개입에서 부모 선택의 가능성을 확대하려 한다. 향상의 문제가 “인간들에게 정상으로 여겨지는 능력 이상의 무엇을 가진 인간을 생산”하는 반면 치유는 “인간들에게 정상으로 여겨지는 기능의 수준으로 상승”시킨다.¹⁴⁾ 그러나 아가르는 뒤이어 이러한 기능의 문제를 둘러싼 향상-치유 구분의 애매함을 지적한다. 규정되는 신체적 기능의 건강과 질병의 구분에 있어서 문화적 문맥과 생물학적 기능 모두를 고려할 때, 문화적 문맥에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부적합한 기능이 정상으로 여겨지거나 혹은 생물학적으로 부적합한 변이 자체가 치유적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있다.¹⁵⁾ 향상과 치유의 경계가 애매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가르는 어

13) Agar, *Liberal Eugenics: In Defense of Human Enhancement*, 6.

14) Ibid., 78.

15) Ibid., 81.

떻게 이러한 애매함이 권위주의적 우생학에서의 국가 개입이 아니라 자유주의 우생학에서의 부모 선호에 의존하는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한다. 권위주의의 국가와 다르게 자유주의 국가가 “시민들에게 어떠한 인간의 완전함에 대한 통일된 상을 제시하지 않고” “그들 각자의 향상의 선택을 실행할 지식과 도구를 제공”한다.¹⁶⁾ 치유와 향상의 구분이 애매하다면, 자유주의 정부는, 부모에게 질병 치유의 의무를 부과하는 영역을 제한하고 반면 부모에게 향상의 자유를 허용하는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¹⁷⁾ “치유의 문제는 그것이 허용보다는 의무 부과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질병 치유나 예방을 넘어서 그 영역을 확장하게 하는 것은 그 자녀를 다양한 방식으로 향상하는 것을 부모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우생학의 옹호자는 따라서 치유의 영역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¹⁸⁾

둘째 질문은 과연 우생학적 향상의 기획에서 추구되는 선한 특질을 어떻게 누가(부모) 누구(자녀)를 위해서 규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이 지점에서 권위주의적 우생학과 구분되는 자유주의 우생학의 가능성이 확보된다. 아가르는 우생학적 향상을 둘러싼 선의 규정에 있어서 국가의 중립성에 대비되는 개인 선호에 달린 사안으로 자유주의 우생학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권위주의적 우생학은 국가가 파악한 유전적 정보와 이론, 그리고 이에서 도출된 선한 특질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들의 생식 권리를 제한한다면, 자유주의적 우생학은 각 개인이 저마다 파악한 유전적 정보와 각 개인이 선택하는 선한 특질들에 대한 선호를 바탕으로 그들의 생식 권리와 선택의 폭을 확장한다.¹⁹⁾ 권위주의적 우생학이 “국가가 선한 인간의 삶으로

16) Ibid., 87.

17) Ibid.

18) Ibid.

19) Ibid.

고려되는 것을 규정하는 유일한 책임을 진다는 이념”에 근거한다면, 자유주의적 우생학에서는 “부모가 가지는 특정한 선한 삶에 대한 개념들이 그들의 자녀들의 향상에 대한 선택에서 그것들(기술 적용과 실행재)을 인도한다.”²⁰⁾

셋째 질문은 우생학적 향상의 기획에서 추구되는 선한 삶의 특질을 어떻게 자유주의적인 정의의 원리에 부합하게 분배하는가의 문제로서, 이는 곧 향상의 기획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최대 수혜 계층과 최소 수혜 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정의의 원칙을 고려해서 허용할 만한 것으로 만드는지의 문제이다. 아가르는 그 스스로 우생학에 관해서 명확한 정의의 원칙을 일관되게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파편적으로 서술된 그의 진술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그가 전제하는 자유주의 우생학이 추구하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우선, 부모-자녀의 불평등과 비대칭에 있어서, 아가르는 부모의 후손에 대한 유전적 개입을 톨스의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정당화한다. 자유와 기회와 같은 선들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이들, 그리고 특히 가장 취약한 위치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에서만 정당화한다는 자유주의적 차등의 원리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발생하는 유전적 개입을 통한 능력 향상이라는 우생학적 기획에도 적용될 수 있다.²¹⁾ 유전적인 개입을 통한 개인의 능력의 향상이 곧 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일종의 분배되어야 할 선의 문제라고 한다면, 한 개인으로서 부모의 삶의 계획에 따라서 분배되는 선의 문제가 다른 개인-수혜자로서 자녀-의 삶의 계획들에 분배되는 선들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문제로 규정된다.²²⁾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해

20) Ibid., 5.

21) Ibid., 148.

22) Ibid., 148.

서 실행하는 우생학적 개입과 유전적 능력 향상 역시 결국은 그 부모가 자신이 누리는 선과 기회를 자녀에게도 역시 분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유전적 개입을 통한 향상이라는 선은 본질적으로 교육이나 혹은 섭식을 통해서 향상을 이뤄낸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²³⁾ 따라서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 적용될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유전적 개입을 통한 향상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정식을 따른다. “유전적 조작의 선들은, 한 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즉 그의 삶의 계획들에 연관된, 특히 가장 최악의 잠재적인 삶의 계획에 연관된, 여하의 전망을 향상하는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한다.”²⁴⁾ 즉 부모의 선의 개념에 따른 유전 개입이 자녀의 자율성의 침해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은 그것이 자녀의 예상되는 최악의 상태를 개선하는 한에서 분배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이후에, 아가르는 자유주의 우생학적 기획으로 발생하게 될 유전자 최대 수혜 계층으로서 젠-리치(Gen-Rich)와 유전자 최소 수혜 계층으로서 젠-푸어(Gen-Poor)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민으로서 상호 인정을 촉진하고 또한 정의의 원칙에 따른 평등성을 제안한다. 리 실버(Lee Silver)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서 젠-리치(Gene-Rich)는 유전 개입을 통해서 최대의 수혜를 입는 계층으로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자연적 인간들(Naturals)과 비교해서, 사회 전 영역에서 우세를 유지하는 계층이다.²⁵⁾ 실버는 이에 대해서 부유층이 누리는 양질의 사립학교 교육의 권리를 막을 근거가 없듯이 역시 양질의 유전적 개입의 권리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²⁶⁾ 그러나 후쿠야마는 이러한 유전 개입의 양극화는

23) Ibid., 149.

24) Ibid., 150.

25) Lee M. Silver, *Remaking Eden: Cloning and Beyond in a Brave New World* (New York: William Morrow, 1998), 5.

26) Ibid., 9.

“단순히 도덕적인 딜레마가 아니라 전면적인 계급 전쟁을 양산하며” 곧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 것으로 전망한다.²⁷⁾ 아가르는 한편에서는 부모가 실행하는 우생학적 유전 개입이라는 생식권을 옹호하고 경쟁에 의한 양극화를 현실적으로 긍정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상호 인정과 정의에 기반한 협동의 가능성을 역시 모색한다.²⁸⁾ 향상의 기획에 내재한 불평등의 심화와 시민성의 위기에 대한 우려에 대답하며, 그가 제시하는 자유주의 우생학이 시민들의 상호적 인정과 불평등의 극복으로 향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다. 부모가 서로 자신의 선호와 능력에 따라서 자기 자녀에게 향상의 기획을 실현한다면, 필연적으로 더 우월하고 최대의 혜택을 받은 계층인 젠-리치와 최소의 혜택을 받은 젠-푸어 사이의 분화와 불평등이 생기고 결국 사회를 유지하는 평등성이 위협받는다. 아가르는 유전적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른 이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 “상호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²⁹⁾ 이런 도덕 가치의 상호성이 형성될 때 “협동이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공동의 이해에 기반한 집단적인 협업”으로서 시민성이 가능하다.³⁰⁾ 아가르는 이러한 시민적 상호성에서부터 그가 이야기하는 향상의 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는 “제퍼슨적 조건”을 도출하며 이는 역시 롤스의 차등적 원리와 유사하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오로지 [향상 기술에 대한 최선의 진입을 가진 이들과 최악의 진입을 가진 이들의 관계들이 상호적 상태로 존재하는 한에서만 향상 기술들에 대한 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³¹⁾ 그는 유전자 개입에서의 불평등의 문제는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의 제퍼슨적 조

27) Francis Fukuyama, *Our Posthuman Future*, 16.

28) Agar, *Liberal Eugenics*, 145.

29) *Ibid.*, 144.

30) *Ibid.*

31) *Ibid.*, 145.

건이라는 원리가 어느 정도 상호적 인정과 공존을 확보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리라 전망한다.

아가르가 제시하는 자유주의 우생학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에 연관되어서 국가가 제시하는 보편적 규정에 대한 의무의 지점은 최소화 되고, 향상에 연관되어서 부모가 추구하는 특수한 선택에 대한 허용의 지점은 최대화되어야 하고, 2) 또한 유전적 개입에 얽힌 선 개념과 그 실행에서 국가의 권한과 자녀의 잠재적 삶의 계획의 권리보다는 부모의 삶의 계획에 따른 생식권이 강조되고, 3) 이는 동시에 부모-자녀, 그리고 최대 수혜자들과 최소 수혜자들 사이에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아가르는 향상에 있어서 부모의 선 개념에 따른 선호와 실행이 자녀의 삶의 계획을 침해할 소지를 인식하고 있지만, 그는 이를 부모의 생식 권리의 문제이자 정당한 영향력의 행사로 생각하며, 또한 부모의 생식권에 따른 자녀의 삶의 계획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자녀가 살아갈 삶의 최악 상태를 향상하는 한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서 두 청각 장애인 레즈비언 부부가 가족 모두가 청각 장애인 됨을 가족이 공유할 선으로 여기고 자녀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남성 청각 장애인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실제로 청각 장애의 유전적 소인을 가진 자녀를 얻는 경우를 보자.³²⁾ 이 경우, 청각 장애인 부모의 유전적 개입은 자신들의 선의 개념을 바탕으로 그에 해당하는 기술적 개입을 통해서 자녀 삶의 최악 상태를 향상한 것이 아니기에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아동의 원칙에 기반을 둔 부모-자녀의 정의 역시 여전히 부모 자신의 선의 개념에 따라서 오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청각 장애와 왜소증 두 가지 모두 가진 레즈비언 부부를 가정해보자. 만일 그들이

32) Merle Spriggs, "Lesbian Couple Create a Child Who is Deaf Like Them," *Journal of Medical Ethics* 28,5(2002), 283.

또한 왜소증과 청각 장애 모두를 선한 특질로 규정하고, 두 장애 중 하나의 장애만 개선한 경우, 두 장애에서부터 하나라도 개선한 점에서 최악의 전망을 향상한 것으로 정당화된다. 또한 부모들의 서로 다른 향상 능력으로 인한 계층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가르는 시민들 사이에 인정의 상호성의 원칙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역시 그 적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어서 최대 수혜 계층과 최소 수혜 계층 사이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교정하지 못하고 단지 그 악화의 정도만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이다. 어떤 면에서 결국 부모 자신의 선 개념과 생식 권리에 따른 자녀의 삶에 대한 유전적 개입은, 결국 그것이 개인의 선택에 근거하게 될 때, 비록 허용할 만한 침해라는 조건과 정의의 원칙을 교정의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리고 수혜 계층과 비-수혜 계층에 대한 부정의에 취약하게 된다.

2.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신학적 응답

기독교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치유를 넘어서 향상으로 나아가며, 부모의 선 개념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유전적 향상을 추진하되, 향상에 수반되는 부정의를 교정하려는 정의의 원칙을 도입하는 세 주제는 신학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분명히 신학적으로 치유와 향상을 구분하고 될 수 있는 한 치유의 영역에 국한하는 흐름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루스틱에 따르면, 기독교 신학이 향상에 대한 담론에서 취해온 입장은 인간의 자연/본성을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과 타락이 교차하는 장소로서 여긴다. 따라서 기독교 신학은 그 자체로 향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유한성에 기인한 한계와 치유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죄의 영향에 기인한 한계를 구분하려 하며, 치유는 물론

향상에 대한 개인들의 진입에 있어 분배적 정의를 강조해야 한다.³³⁾

우선 치유와 향상에 대해 다른 강조점을 살펴보자. 아가르가 지적한 것처럼, 향상과 치유의 구분은 문화적 문맥과 생물학적 조건 그리고 더 나아가 유전자들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의 발전에 달려 있기에 애매한 문제이며, 따라서 아가르에게서 향상에 대한 강조는, 사실 국가적 개입과 개인의 의무를 요구하는 치유에 대한 강조에 비교할 때, 좀 더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신학 윤리적 입장 역시 치유와 향상의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칙의 일관성을 위해서 치유의 문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버히 역시 하나님의 창조적 역할에 대한 인간의 참여를 긍정하고 그 창조적 역할에서 치유와 향상 사이의 구분이 애매함을 인식하지만, 그럼에도 규범적인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양자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유전적 치유는 곧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원인에 대한 복무로 긍정될 수 있다. 유전적 치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책임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건강의 문제이어야지, 유전적 향상이어서는 안 된다. 그 구분은 불안정한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 치유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구분을 하게 하며 그것에 고수하게 한다.”³⁴⁾ 비록 향상이라는 원칙을 고수

33) 앤드류 루스틱은 향상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향상을 논의할 때 크게 다섯 주제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1) “자연/본성(nature)은 타락했어도 신의 창조적 목적에 의해서 형성되고 정보 받은” 존재이며, 2) “인간 역시 단일한 본성”으로 “조작 가능한 본성”이 되길 거부하며 3) 질병과 장애 같은 “죄의 결과들은 ... 인간 유한성과 구분”되어야 하며, 따라서 4) 질병에 연관된 “치유적 개입의 적절성”을 긍정하고 “향상 기술을 바탕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보이며, 5) 개인에게 진입 가능한 향상의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 “정의의 요구, 특히 분배적 정의의 요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Lustig, “Enhancement Technologies and the Person: Christian Perspectives,” 48-49.

34) Allen Verhey, “Playing God’ and Invoking a Perspective,” 361.

하든 혹은 치유라는 원칙을 고수하든,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결국 근본적인 치유와 향상의 규정에서 보이는 애매함이 자유주의 우생학과 신학 윤리적 입장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힌다.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증진하거나 노화를 늦추는 유전적 개입 등등은 향상으로도 혹은 치유로도 볼 수 있으며, 자유주의 우생학은 이 문제를 개인의 선호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이 처리할 향상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신학적 윤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치유자로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치유의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다.

또한 향상이건 혹은 치유이건, 개인이 그러한 개입의 선에 대해서 진입하는 권리에 관한 정의의 문제를 살펴볼 때, 아가르의 자유주의적 우생학과 신학 윤리적 입장 사이에는 이견이 작을 지점도 있다. 아가르가 제시하는 유전자 수혜 계층과 비-수혜 계층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정의의 원칙으로 상호 인정과 협력이라는 가치는 신학적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긍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향상이 아닌 치유의 문제에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유전적 치유의 범위와 효력에 있어서 유전적 수혜 계층과 비-수혜 계층의 차이가 나게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기독교 신학은 상호 인정과 협력을 강조하며 분배적인 정의로서 비-수혜 계층의 더 나은 접근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원에서 기독교 신학과 양립하기 힘든 지점이라면 부모가 가진 선 개념에 따라서 자녀를 조작할 수 있게 허용하는 생식 권리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다. 올리버 오도노반(Oliver O'Donovan)은 기술이 단지 사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복무하고 그에 따라 인간 생명을 제작하고 조작할 만한 존재로 다루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신앙 고백적인 태도가 배아와 태아 자체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전적 통제를 포기하고, 그것이 가진 잠재적 평등성과 협력자 됨을 인정하는지를

보여준다. 오도노반은 “의료 기술이 이제 자유의 열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의도로만 형성되고 발전”되는 상황 속에서³⁵⁾ 배아와 태아 안의 인간 생명을 “우리의 동료가 될 수 있는 낳게 된 이”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가 될 독립성을 가지지 못할 ... 우리 기술의 제작품”으로 다루게 되는 위험을 지적한다.³⁶⁾ 오도노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적 윤리가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는지를 설명한다. 신의 선한 창조, 섭리, 인간 형제애의 초월적 근거, 세계의 근거로서의 말씀에 대한 신앙은 각각 기술 사용과 제작을 위한 전유에 한계를 설정하며, 그 배아 혹은 태아의 미래를 결정하는 책임에 스스로 제한을 가하며, 그가 잠재적 동료로서 가지는 평등성을 정초하며, 사적 선택을 넘어서 공적 윤리의 원리로 작동하는 시사점을 가지게 된다.³⁷⁾ 아가르의 자유주의적 우생학이 향상에 있어서 결국 부모의 선 개념에 따른 생식 권리의 객체로서만 배아와 태아를 접근한다면, 신학적 입장은 치유의 사안에 있어서 배아와 태아에 대한 기술적, 제작적 태도를 거부하고, 그 자발적 생의 경로에 대한 개입과 책임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평등성과 그러한 태도의 규범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치유적 유전 개입의 원칙이 가진 조심스러움과 진입의 분배 정의, 그리고

35) Oliver O'Donovan, *Begotten or Ma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6.

36) *Ibid.*, 1.

37) 첫째, 오도노반에게서 “신의 선한 창조로서 자연 질서에 대한 신앙”은 “기술 사용에 있어서 한계와 우리 제작의 적절함에 한계를 두는 것”을 수반한다. 둘째, “역사의 지배적 힘으로서 신의 섭리의 신앙”은 곧 배아와 태아에 대한 개입을 통제 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를 “전체로 창조할 수 있는 제작품이라는 태도를 거부”하는 것 역시 함의한다. 셋째, “인간 형제됨의 초월적 근거에 대한 신앙”은 곧 부모로서의 개인과 배아 그리고 태아 모두 “성부 앞에서의 공동의 위치”에 따른 “동등한 협력자됨”을 의미한다. 넷째, “태초부터 신과 함께 있었고 그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은 말씀에 대한 신앙”은 곧 “어떻게 행동할지 분별하게 하는 이해가 ... 단순히 사적 양심이나 혹은 대중적 동의가 아니라” “곧 모든 인류에게 청중을 요구하는 공적이고 공적으로 반포될 이해”라는 점을 시사한다. O'Donovan, *Begotten or Made?*, 12-13.

자녀와의 평등성을 지향하는 신학적 흐름은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이론적 수정, 즉 향상에서의 자녀 평등의 원리와 자녀도 역시 동의할 추정적 향상 개념과 보편적 진입을 위한 국가 개입을 강조하는 흐름과 합류하게 된다.

III. 자녀 향상과 자유주의 중립성 그리고 신학적 응답

1. 자녀 향상 이론과 자유주의 중립성 이론에서의 향상의 기획

전술한 것처럼, 아가르가 제시하는 향상에 있어서 부모 각자가 가진 선 개념과 생식 권리에 따른 자녀에 대한 일방적 개입이 강조될 때, 그가 그 일방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허용할 만한 불평등으로서 정의와 시민적 상호 인정의 원칙도 결국은 취약해진다. 근본적으로 부모 개인의 선호에 잠재적 인격의 권리를 종속시키면, 정의의 문제는 불안정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한 개인의 다른 개인에 대한 종속이 자유주의적인 가라는 문제가 폭스와 데커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폭스와 데커 같은 연구자들은 모종의 선의 개념에 따른 유전적 향상에 있어서 국가를 통해 규정되는 공공적인 선 개념을 바탕으로 한 실행의 의무와 허용의 문제를 다루며 논의를 전개한다. 폭스와 데커는 향상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의 생식 권리와 이에 얽힌 선 개념에 따른 침해 혹은 저해 받는 자녀의 삶의 계획의 권리를 짚으며 자유주의 정부가 중립적인 선 개념을 따라서 자녀의 선한 삶의 권리를 증진하는 개입과 이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공동으로 강조한다. 하지만, 부모의 특수한 선 개념을 바탕으로 한 개입의 문제를 허가 혹은 금지할 것인가를 두고 양자는 차이를 보인다.

폭스는 “자녀 향상의 자유주의 이론”(the Liberal Theory of Offspring Enhancement)을 제시하면서, 향상이라는 문제의 초점을 부모의 선-개념에 따른 선택과 생식 권리에 두는 것이 아닌, 그 수혜자인 자녀들이 동의

할 만한 향상에 두고 그 점에서 자유주의 정부의 개입과 보조를 강조한다. 자녀들 스스로 가지는 자율성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부모나 환경 같은 외적 조건이 그들의 자율성을 제한적으로 행사되게 할 때, 국가가 교육이나 의료 등의 영역에서 그들이 가설적으로 동의할 만한 방식의 선을 규정하고 제시하는 온건한 의미의 간섭주의를 주장한다. 자유주의 정부는 자녀들의 자율성의 실행 능력이 침해받을 때 이를 증진하며, 따라서 자유주의 정부는 누구나 선택할 만한 일반적인 선으로서, 자기 삶의 가치와 계획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삶의 자원들을, 그 침해에 맞서 강제로 보장한다. 폭스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명제로 구성되어 있다: 1) 자녀들의 자율성은 그 나이에서의 한계와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그 능력과 행사가 저해될 수 있다, 2) 자유주의 국가의 간섭주의는 자녀들이 그들의 삶에서 여하의 방식으로 선택할 자율성을 증진하는 조건이라고 가설적으로 동의하고 선택할 만한 일반적인 선을 마련해주는 한에서 정당화된다, 3) 우전적 개입을 통한 향상이 일반적인 선이기에 이에 대한 자유주의 국가는 중립성을 지키며 편파성 없이 간섭할 수 있다.³⁸⁾ 이렇듯 누구나 자신의 자율성과 기능을 증진하는 조건이라고 선택할 만한 일반적인 일차적 선들을 향상하는 것에 자유주의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정당하기에, 잠재적 인격으로서 배어나 태아 상태에 있는 자녀들이 이후 그들의 각각 선택할 삶에 일반적으로 도움이 될 선들이 무엇인지 국가가 규정하며 실행하는 간섭은 역시 정당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곧 일반적으로 동의를

38) “자율성의 실행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연령의 문턱, 그리고 자율권의 쉬운 실행에 대한 정부 이외의 방해 요소는 곧 자유주의 국가가 자녀들을 위해서 일반적인 목적에 종사하는 삶의 자원들을 강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며, 이러한 삶의 자원들은 즉 몰스가 이야기한 사회적인 일차적 선과 같은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특정 사람들이 채택하거나 혹은 거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할 만한 여하의 종류이건 생의 계획에 유익을 주는 것이다. ... 따라서 자기 삶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자녀들도 역시 그럼에도 가설적으로 어떠한 선들은 그들이 이후 택할 여하의 선들에 실제로 가치가 있다고 긍정할 수 있다.” Fox, “The Illiberality of ‘Liberal Eugenics,’” 10.

얻는 자율성의 증진 이외에는 특정한 선의 개념에 이끌리지 않기에 자유주의적 중립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자연적인 일차적 선의 향상을 위한 국가 보조적 프로그램은 결국 자녀의 자율성 외에는 어떠한 선의 특정한 개념을 가지지 않는다.”³⁹⁾ 폭스의 간섭주의는 법적인 차원에서의 강제력의 행사라기보다는 국가적 보조로 이루어지는 권장 프로그램에 가깝다. 그는 먼저 그가 제시하는 모델이 “입법적 지침이라기보다는 규범적 지침에 적용되며” 그가 의도하는 의무적 혹은 강제적 개념의 의미가 “도덕적 의무이지만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⁴⁰⁾

폭스는 이 점에서 대개 모든 이들의 삶의 계획의 실행과 자율성을 증진하는 것에 일반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는 자연적인 일차적인 선들과 특정한 삶의 계획에는 유용하게 활용되나 다른 계획에는 그렇지 않은 자연적인 비-일차적 선들을 구분한다. 자연적인 일차적 선들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 물리적 운동성과 조음, 시청각 인식, 단-장기 기억 언어적 추론, 일반 인식 능력 그리고 반응성, 충동 통제, 참신성 추구, 역경 회복력 등등 같은 행동적 특질들을 포괄한다.⁴¹⁾ 반면 자연적인 비-일차적 선들은 신장이나 사회성, 목소리 톤, 충실성과 관대함, 피부색이나 성적 선호 등을 포함한다.⁴²⁾ 폭스는 상대적으로 두 종류의 선들 사이의 중첩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양자의 구분이 설득력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일차적인 선들의 유전적 향상에 있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권장과 이에 상응하는 부모의 도덕적 의무가 강조되고, 비-일차적인 선들에 있어서는 부모의 결정과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허용을 제시한다.⁴³⁾

39) Ibid., 24.

40) Ibid., 15.

41) Ibid., 11-12.

42) Ibid., 11-12.

43) “1) 부모들은 도덕적으로 다른 가치 있는 능력들이나 성향들의 왜곡 혹은 손상 없이 자연적으로 일차적인 선들을 향상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육아 실천을 수행할 도덕적

폭스가 제시하는 자유주의 정부의 간섭주의는 곧 “자연적 일차적 선들의 향상에 있어서 출생 이전 생명체들에 대한 가설적 동의의 보편적 귀속”에 근거한다.⁴⁴⁾ 즉 유전적 개입이 일반적인 차원의 삶의 계획에 유용한 자연적인 일차적 선들의 향상을 도모하는 경우 잠재적 인격인 배아 혹은 태아로서 자녀가 이에 대해서 가설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점이 바로 정부가 실행하는 자녀의 침해에 대한 간섭적 개입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부터 곧 자유주의 국가, 시민으로서 부모, 그리고 잠재적 시민으로서 자녀 사이의 관계를 각자의 권리의 문제와 선의 추구에 얽힌 자율성의 관점에서 논의를 확장해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자유주의 정부는 자녀가 가지는 잠재적인 시민으로서 규범적인 위치와 그 권리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서 자녀들의 자율성이라는 권리를 전반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만 소용되는 자연적·일차적 선을 둘러싼 유전적 향상을 제시하고 이를 부모들의 의무로서 요구한다. 동시에 자유주의 정부는 각자 시민이 부모로서 가지는 자기 자녀에 대한 생식권과 양육권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서 부모가 설정한 특정 삶의 계획과 선의 개념에 따라서 자녀 생식과 양육의 재량권을 허용하며 이를 증진하는 자연적·비-일차적인 선을 둘러싼 유전적 향상을 부모들에게 허용한다.

이런 점에서 테커는 “중립적 향상 이론”(the theory of neutral enhancement)을 제시하면서 유전적 향상에서 개인의 권리와 선의 추구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주의 국가와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의 대칭성을 명확하게 추구한다. 테커는 아가르의 자유주의적 우생학을 반대하고 폭스의 자녀 향상 자유주의 이론에서 부모의 비-일차적 선에 대한 향상의 권리 허용을

의무를 가진다, 2) 부모들은 자신의 결정들이 그들의 자녀들이나 다른 이들에게 해악을 야기하지 않거나 혹은 중요한 공공적 선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그 자녀들에게 자연적인 비일차적 선들을 위한 향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도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Ibid., 14.

44) Ibid., 14.

비판하며, 향상의 문제를 일차적 선에 대한 자유주의 정부가 개입하는 중립적인 향상으로만 제한한다. 데커가 문제 삼는 것은,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이건 혹은 국가-자녀 사이의 관계이건, 결국 “후속 세대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도록 허용받은 외적인 존재”의 문제이다.⁴⁵⁾ 그는 폭스의 자연적-일차적 선과 자연적-비-일차적 선의 구분을 수용하면서, 자유주의 우생학은 부모에게 일차적 선과 비-일차적 선의 향상을 위임하고, 자녀 향상 이론은 국가에 일차적 선의 향상을 위임하고 부모에게 의무로 요구하고 또한 비-일차적 선의 향상을 부모에게 허용하지만, 두 경우 모두 부모의 비대칭적이고 일방적인 향상을 인정한다고 비판한다.⁴⁶⁾ 그 대안으로 그가 제시하는 중립적 향상 이론은 국가나 부모나 유전적 간섭에 있어서 특정한 선의 개념 없이, 오로지 자녀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일반적인 일차적 선의 향상만을 지향한다.⁴⁷⁾ “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이 국가이건 부모이건 다른 이들이 자녀의 유전적 특질을 선택하게 할 수 없다.”⁴⁸⁾ 이러한 예외의 지점은 바로 “특정한 선의 이론의 부과 없이 이루어지는 삶의 모든 계획에 유용한 유전적 특질들,” 즉, 자연적인 일차적 선들이며 이러한 향상은 의무로서 요구된다.⁴⁹⁾

데커는 분명히 이 지점에서 부모가 시민으로서 가지는 자율의 권리와 선의 추구가 잠재적 시민으로서 자녀의 자율과 선의 추구를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는 모델을 구조적으로 마련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원은 그가 자율성의 촉진 기획으로서 자연적-일차적 선에 따른 국가-주도적인 유전적 향상만을 인정하고, 자연적-비-일차적 선에 있어서 부모와 국가의 향

45) Dekker, “The Illiberality of Perfectionist Enhancement,” 97.

46) Ibid., 93.

47) Ibid.

48) Ibid., 97.

49) Ibid.

상을 모두 금지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부모의 특정한 선의 개념에 따른 일방적인 유전적 향상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부모에 의해 자행될 자녀의 자율의 권리 침해와 그 삶의 계획의 왜곡 가능성을 제거한다. 물론 데커는 부모의 특정한 선의 왜곡만큼 자유주의 정부의 특정한 선의 왜곡을 경계하며 그 점에서 자연적·일차적 선의 향상을 통한 자율성의 확보에만 자유주의 정부의 선의 개념을 제한한다. 유전적 향상의 문제에 있어서 오로지 가능한 대안은 결국 자율성을 증진하는 자연적·일차적인 선의 문제라고 한다면, 결국 향상의 문제에서는 자유주의 정부가 규정하는 정치적인 것과 자율성의 향상에 대한 세부 규정은 결국 역시 일차적 선에 대한 정부의 규정을 가져오게 된다.

자녀가 가질 최악의 삶의 전망을 피하게 하는 한에서 정당화되는 부모의 선호에 따른 향상을 긍정하는 아가르와 달리, 폭스와 데커 모두, 비록 특수한 선 개념에 따른 향상을 금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 사이의 비대칭적 관계에 근거한 자율성의 침해를 극복하고 그 자율성의 일반 조건을 마련하는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다. 폭스와 데커 모두에게서 자유주의 국가는, 부모가 자녀에게 귀속될 자연적인 일차적인 일반적인 선들을 함양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잠재적인 시민으로서 자녀에게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살아갈 자율의 권리와 일반적 선, 혹은 자연적·일차적 선을 확보할 권리를 보호한다. 하지만 폭스에 따르면 국가는 자연적·일차적 선의 보장 이외에 자연적·비·일차적 선에 대한 부모의 개입에 대한 허용을 약속하면서, 여전히 특정한 개인이 다른 잠재적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영향력을 허가한다면, 데커에 따르면 자유주의 국가는 자연적·비·일차적 선에 대한 부모의 일방적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비록 자연적·일차적인 일반적 선에 따른 향상을 보장하면서 자유주의 정부 개입의 중립성을 확보하지만, 자연적·비·일차적인 특수한 선

에 따른 향상의 자유를 부모에게 허용하면 자유주의 정치체제의 다른 가치인 자녀의 삶의 계획의 자유와 평등성을 위배하게 된다. 전술한 가상의 사례로서, 왜소증과 청각 장애가 있는 레즈비언 커플이 그와 같은 특질을 보유한 자녀를 인공 수정으로 가지려고 할 때, 폭스의 이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감각 기관의 작용에 관한 청각 기능의 문제는 자연적·일차적 선으로서 자녀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일반적인 선이기에, 국가는 부모에 의한 침해의 가능성을 막고 개입하며 그 향상을 부모의 의무로서 규정한다. 하지만 신장의 문제에 해당하는 왜소증의 문제는 자연적·비·일차적 선으로서 부모의 선호에 열려 있는 특수한 선이기에, 국가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 추구하는 왜소증을 조장하는 향상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한다. 반면에 데커의 이론에 따르면 청각 기능의 문제에서는 폭스와 결론이 같지만, 왜소증의 문제에서는 그것이 자연적·비·일차적 선이기에 부모 주도의 향상은 금지되어야 한다.

2. 자녀 향상과 자유주의 중립 이론에 대한 신학적 응답

폭스의 자녀 향상의 자유주의 이론과 데커의 중립적 향상 이론은 어떠한 신학적인 접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폭스와 데커 모두 동의하는 지점은 침해받는 자율성의 보장에 있어서 정부의 중립성에 기반한 역할과 그 한계의 문제이다. 자유주의 정치 원리에 따르면 부모의 선호에 따른 자녀의 삶의 계획의 권리의 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자녀도 아울러 이후에 가설적으로 선택할 만한 일반적인 선으로서, 자신의 자율성 자체를 혹은 자유를 증진하는 삶의 자원이자 조건은 국가에 의해서 규정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신학적인 입장이 향상과 치유의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향상의 문제보다는 치유의 문제에 강조점을 두더라도, 그 치유 역시 향상과 유사하게 자율성의 문제에 연관되며 또한 국가 개입의 문제에 해

당한다. 신학적으로 질문해 볼 사안이라면, 1) 일반적인 선 개념에 따라서 개인의 자율적인 역량을 증진하는 치유가 신학적으로 긍정될 수 있는지, 2) 그리고 그것이 긍정될 수 있다면, 그러한 차원의 문제를 국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신학적으로 정당한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자율성의 역량을 국가가 증진하고 그 침해의 가능성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문제 될 이유가 없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하는 두 도성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배아와 태아가 이후 잠재적 인격으로서 자신의 자율성을 발휘하는 문제는 지상의 도성의 사안이라면, 그가 이후 인격으로서 하나님을 향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는 천상의 도성의 사안으로서 그 자율성이 지상의 사안들을 거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변환되는 과정은 순례의 문제이다. 지상의 도성의 사안은 시간적이고 상대적인 삶에서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신체적 건강과 건전함, 사회,” 그리고 “우리 감각에 적합하고 진입-가능한 모든 것을 의미하며 빛과 언어, 공기, 물, 그리고 신체의 유지, 착용, 보호, 치유, 그리고 장식” 등을 위한 것이다.⁵⁰⁾ 어떤 면에서, 한 개인이 그 자유와 자율성을 발휘하게 도와주는 일반적 향상의 문제는 지상의 도성의 사안, 즉 시간적 차원에서의 삶의 평화로운 영위의 문제이다. 물론 천상의 도성의 사안은 지상의 평화 자체를 단지 사용할 뿐 영원한 평화를 지향하며 이를 향유 하는 것에 있다. “그러한 필멸의 평화에 맞게 선을 옳게 사용하는 필멸자들은 더 부요하고 더 좋은 선들, 즉 불멸의 평화와 그에 적합한 영광과 명예를 곧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향유 하는 것에 적합한 영원한 삶에서 누릴 것이다.”⁵¹⁾ 자유와 자율을 위한 삶의 자원들로서 기본적인 자연적인 선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들

50) Augustine, *The City of God against the Pag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940.

51) Ibid.

은 그 자체로 그 의지와 인격 전체를 초월적인 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향하게 하기 위한 조건들일 뿐이다. 따라서 배아나 태아가 향상의 과정에서 잠재적인 인격으로서 이후 자신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선한 삶을 위한 자원을 갖추게 된다고 할 때, 이러한 자연적·일차적 선의 증진은 이후에 그가 인격으로서 초월적 선을 추구할 때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전혀 신학·윤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

그렇다면, 둘째로 물어볼 지점은 그러한 자연적·일차적 선들을 바탕으로 한 침해받는 자녀의 자율성의 권리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주체가 자유주의 국가라는 점이 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존 밀뱅크(John Milbank)나 오도노반과 같은 아우구스티누스 계열의 신학자와 윤리학자들이 자유주의적 정치 질서 자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예를 들어 밀뱅크는, 지상의 도성으로서 자유주의 정치체제가 갈등을 완화하는 형식적 개방성과 임시적인 평화 그 배후에 다양한 욕망들의 충돌과 폭력성을 동반함을 제시한 후, 이를 평화의 도성으로 교회의 대안적 이야기와 존재론, 그리고 윤리의 문제와 대조한다.⁵²⁾ 또한 오도노반 역시 그의 초기 작품에서 이미 “자유주의적 혁명”이 다양한 “자유들의 유지와 연장에 관심하며” “현대사회의 기술 변환”과 결합하여, 각자 인간이 가지는 자유의 관심에 따라서 낳게 된 존재가 아닌 제작된 존재로 생명을 통제하려 하는 방식으로 다루게 되었다고 본다.⁵³⁾ 두 사상가를 관통하는 문제는 자유주의 체제의 표면적인 개방성과 관용 배후에 욕망 충돌의 폭력성과 지배에 대한 비판이며 또한 이를 넘어선 교회의 문화 변혁적인 정치신학의 가능성이다.

유전적 향상/치유에 개입할 수 있는 정치 신학적 문화 변혁의 문제는

52) John Milbank, *Theology and Social Theory: Beyond Secular Reason* (Malden, MA: John Wiley & Sons, 2008), xi.

53) O'Donovan, *Begotten and Made?*, 6-8.

종교가 가진 문화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시민 사회와 정부 사이의 상호 관계를 고려할 뿐 아니라 시민 의식의 변화를 통한 자본-기술-국가의 복합체로부터의 자유의 여지를 제시할 수 있다. 오도노반은 “우리 문화 안에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즉 유전 개입에 대한 문화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고려하는 시점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생명을 향한 기술 활용과 제작적 태도, 과도한 개입과 책임성을 제한하고, 생명의 평등성을 강조해야 함을 주장한다.⁵⁴⁾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첫째, 유전 개입의 문제에 대한 문화 변혁적 정치 신학의 기획은 자유주의 정치체제가 가진 종교와 문화, 그리고 시민 사회와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게 한다. 문화와 그 문화를 공유하는 시민 사회, 그리고 그것을 포괄하는 자유주의 국가라는 정치체제 속에서 교회는 문화를 형성하며 국가에 영향을 주는 정치 신학적인 기획에 매진한다. 오도노반은 자유주의 안에서 교회의 정치 신학적 역할을 다루면서, 정부와 시민 사회 사이의 상보적 관계를 상정하고, 시민 사회에 공유되는 문화의 정치적 차원을 강조하며, 그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의 선포를 강조한다.⁵⁵⁾ 오도노반에 따르면 결국 정치적 권위의 문제가 권력의 통일이고, 권위의 행사이고, 그것을 떠받치는 전통의 지속이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는 결국 교회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권위 안으로 종속해야 한다.⁵⁶⁾ 이러한 신학적인 입장은 분명히 배아나 태아 상태의 자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주체로서 자유주의 정부를 제시하는 폭스와 테커의 논의가 가진 한계를 드러낸다. 폭스와 테커가 자연적-일차적 선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주체로서 자유주의 정부로 상정할 때, 이들은 그 배후에 교

54) Ibid., 13

55) Oliver O'Donovan, *The Desire of the Nations: Rediscovering the Roots of Political Th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230-233.

56) Ibid., 233-235.

회의 문화적 영향력과 문화를 공유한 시민 사회의 여론 형성과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수반하는 정교한 도덕적-정치 신학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오도노반은 현대 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개인의 생식 권리를 둘러싼 기술 활용의 문제를 다룰 때, 단순히 잠재적 인격이 가진 자율성의 수호자로서 자유주의 정부의 개념을 넘어서, 필연적으로 교회와 문화, 시민 사회와 정치적 권력과 권위로 이어지는 연쇄 속에서 역동적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고려한다. 둘째, 문화 변혁적 정치 신학의 기획은 유전적 개입을 추동하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라는 복합체와 이를 둘러싼 다양한 개인들의 욕망에 맞서서 생명의 주어짐의 가치와 평등성을 자신과 후손의 삶에 자발적으로 구현하는 가치 공동체를 제시할 수 있다. 자유주의 우생학의 강조점이 개인 선택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이행되었지만, 여전히 정부의 개입이 자본의 이익과 맹목적 기술 발전 논리와 소수 전문가 지배에 취약하며 또한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의 통로 역시 저조하며 설령 그것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들 역시 맹목적 향상에 대한 욕망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여러 향상/치료를 위한 유전적 개입이 진행되더라도 그 논의에서 생명의 존엄과 평등성의 가치를 역설할 수 있는 가치 공동체로서 교회의 정치 신학적 증언이 더욱 필요하다.

IV. 나가는 말

우생학의 문제는 과거 권위주의 우생학의 굴레에서 벗어나 부모의 선택을 강조한 자유주의적 향상을 제시하며, 이후의 이론들은 자녀가 가설적으로 동의할 만한 일반적 선에 따른 향상의 공적 기획을 강조하고 동시에 부모의 선호를 반영하는 특수한 선에 따른 사적 향상을 허용하거나 혹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아가르의 자유주의적 입장이 향상과 치

유 사이의 애매성 속에서 향상을 더욱 강조하고, 자녀가 가질 최악의 상황을 향상하는 한에서 정당화되는 부모의 생식 권리의 우선성과 자녀가 감수해야 하는 자율성의 침해를 제시한다. 신학적 관점은 동일하게 치유와 향상의 애매함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치유를 더욱 강조하며, 정의의 원칙에 따른 상호 인정과 협력을 긍정할 수 있지만, 부모 선택의 우선권을 거부하고 자녀를 향한 기술 조작과 전적 통제의 태도에 대한 제한과 부모-자녀 사이의 평등성의 인정을 더욱 강조한다. 폭스와 데커 모두, 비록 부모의 특수한 선 개념에 따른 부모의 개입을 허용 혹은 금지하는가에 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국가가 일반적인 선 개념에 따른 자녀의 자율성을 증진하며 그 침해에 개입하는 가능성을 긍정한다. 국가 주도의 자녀 자율성 증진과 개입에 대한 신학 윤리적 입장 역시 정부에 의한 자율성의 증진을 종교적 초월과 구분되는 지상 정부의 사안으로 긍정할 것이지만, 자유주의 국가의 개입과 결정의 여부에서 종교와 문화, 시민 사회, 정치 제도를 아우르는 정치 신학적 입장을 역시 함께 역설한다. 기독교 정치 신학은, 유전적 개입에서 향상과 치료의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적 원칙을 견지하고 자녀의 평등성을 고수하면서, 일반화된 보편적 원칙에 따른 자녀 자율성의 증진을 긍정하고, 자기 나름의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와 시민 사회에 영향을 주며 자유주의 정부의 개입에 참여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광연. “유전자 편집 기술의 메타모포시스.” 『한국개혁신학』 62(2019), 70-96.
- _____. “자유주의 우생학과 생명정치-유전자 결정론과 생명계급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 8/2(2014), 109-131.
- 김남준.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변 분석-‘유전자 결정론’ 비판을 넘어서.” 『철학논집』 62(2020), 65-102.
- 김소윤, 이관표. “현대의학의 영생 기술과 그 신학적 성찰-텔로미어와 유전자 가위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178(2017), 279-309.
- 김은혜. “생명과학연구윤리의 재정립을 제안하며: 기독교생명윤리학적 관점에서.” 『기독교사회윤리』 19(2010), 39-69.
- 목광수.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 126(2016), 101-127.
- 방연상. “생명산업 시대의 신학적 생명: CRISPR 기술을 중심으로: CRISPR 기술을 중심으로.” 『신학연구』 70(2017), 101-128.
- 손철성. “자유주의적 우생학에 대한 두 가지 비판 방식: 하버마스와 샌델의 논변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119(2011), 173-202.
- 유경동. “생명개념과 생명윤리에 관한 법과 기독교의 입장 비교연구.” 『장신논단』 47/1(2015), 177-201.
- 이경직. “기독교 생명윤리학 방법론.” 『기독교사회윤리』 10(2005), 33-57.
- 전대경. “CRISPR-CAS (유전자 가위) 기술에게 있어서 치료와 증강 사이의 모호한 경계선 문제와 트랜스휴머니즘적 메타모포시스 비판-생명공학·의료기술의 개혁주의 생명윤리적 메타모포시스를 위하여.” 『한국개혁신학』 66(2020), 167-208.
- Agar, Nicholas. “Liberal Eugenics.” *Public Affairs Quarterly* 12.2 (1998), 137-155.
- _____. *Liberal Eugenics: In Defence of Human Enhancement*. Malden, MA.: John Wiley & Sons, 2008.
- Augustine. *The City of God against the Pag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Bostrom, Nick. “The Transhumanist FAQ.” In: Mercer, C., Maher, D.F. (eds.)

- Transhumanism and the Bod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 Buchanan, Allen and al. *From Chance to Choice: Genetics and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Dekker, Teun J. "The Illiberality of Perfectionist Enhancement." *Medicine, Health Care and Philosophy* 12 (2009), 91-98.
- Fox, Dov. "The Illiberality of 'Liberal Eugenics'." *Ratio* 20,1 (2007), 1-25.
- Fukuyama, Francis. *Our Posthuman Future: Consequences of the Biotechnology Revolution*.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2002.
- Galton Francis. *Inquiries into Human Faculty and its Development*. London: Macmillan, 1883.
- Habermas, Jürgen. *The Future of Human Nature*. Malden, MA.: John Wiley & Sons, 2014.
- Lustig, Andrew. "Enhancement Technologies and the Person: Christian Perspectives."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36,1 (2008), 41-50.
- Massmann, Alexander. "Genetic Enhancements and Relational Autonomy: Christian Ethics and the Child's Autonomy in Vulnerability." *Studies in Christian Ethics* 32,1 (2019), 88-104.
- Milbank, John. *Theology and Social Theory: Beyond Secular Reason*. Malden, MA.: John Wiley & Sons, 2008.
- O'Donovan, Oliver. *Begotten or Ma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 _____. *The Desire of the Nations: Rediscovering the Roots of Political Th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Peters, Ted. *Playing God: Genetic Determinism and Human Freedom*. New York: Routledge, 1997.
- Sandel, Michael. *The Case Against Perfection*.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 Silver, Lee M. *Remaking Eden: Cloning and Beyond in a Brave New World*. New York: William Morrow, 1998.
- Spriggs, Merle. "Lesbian Couple Create a Child Who is Deaf Like Them." *Journal of Medical Ethics* 28,5 (2002), 283.
- Verhey, Allen. "'Playing God' and Invoking a Perspective." *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 20,4 (1995), 347-364.

Waters, Brent, *From Human to Posthuman: Christian Theology and Technology in a Postmodern World*. New York: Routledge, 2016.

논문투고일: 2024년 03월 05일

심사개시일: 2024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4년 04월 04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행사하는 유전적 향상이 어떻게 부모의 선 개념에 따른 생식 권리, 자녀 자율성, 그리고 일반적 선 개념에 따른 자유주의 정부 개입의 권한을 수반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가능한 정치 신학적인 응답을 제시한다. 아가르(Agar)의 자유주의적 우생학이 부모의 선 개념과 생식 권리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일방적 향상과 이를 보완할 정의의 원칙을 제시한다면, 폭스(Fox)와 데커(Dekker)의 이론적 수정은 자녀 자율성의 증진을 위해 일반적으로 동의할 만한 자연적·일차적 선들을 증진하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유주의 우생학과 그 수정 이론들에 대해서, 정치 신학적 응답은 치유-향상의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우선권을 긍정하며 선한 삶의 일반적 개념에 따라 자녀의 자율성의 동등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시민 사회에 대한 문화적 영향을 통해서 자유주의 정부의 개입과 시민 의식을 인도해야 한다.

주제어: 자유주의 우생학, 유전 조작, 향상, 치유, 정치 신학
